

NATIONAL
 **KAGRO**
JOURNAL

March / April 2007
Volume 16, Number 2



A close-up photograph of a condensation-covered beer can, likely a Coors Light can, with a mountain peak graphic above it. The can is covered in water droplets and has a white mist or vapor rising from the top. The background is black.

Coors LIGHT
TASTE THE COLD



신속. 안전. 용이.

머니그램® 송금은 한국 및 중국과 전 세계 송금시 탁월한 선택입니다.

- 신속 - 송금후 10 분* 이내 수취 가능
- 안전 - 은행처럼 안전하지만 은행구좌 불필요
- 용이 - 전세계 네트워크를 이용한 송금은 신청서 한 장으로 가능
- 편리 - 머니그램은 170여국에 84,000 여지점 보유
- 저렴한 수수료 - 수취인 수수료 부담 없음

한국대리점:



중국대리점:



1-800-926-9400 www.moneygram.com

• 취급문의 : Ted Lee 213-700-2627

MoneyGram®

국제 송금서비스



목 차

Officers

President
 JuHan Kim
 Oregon

Vice-President
 SeungSoo Le
 Philadelphia

Vice-President
 BokKi Kim
 LosAngeles

Vice-President
 ChulHee Yoo
 Georgia

Vice-President
 ChoonBok Lee
 Washington

Advisors

Andrew Ku
 KiPung Chun
 David H. Kim
 YangIl Kim
 Thomas Lee

6. 김주한 회장 인사말
7. 한용웅 이사장 인사말
8. 경상북도지사 축하 메세지
9. Coca Cola사 축하 메세지
10. 각 지역협회 축하 메세지
14. 각 지역 협회소식
19. National KAGRO 연혁
20. KAGRO 포토 갤러리
22. KAGRO 후원업체
24. 업계소식
27. 미국뉴스
31.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39. 추천도서
42. 회장단 및 스폰서 소개

Board of Directors

Chairman
 YongWong Han
 Delaware

Vice-Chairman
 KwangIk Lim
 Colorado

Vice-Chairman
 Philip Kim
 Vancouver, Canada

Vice-Chairman
 John J. Jung
 Virginia

Vice-Chairman
 David Kim
 Maryland

Auditors

TaeWhan Ko
 Texas

Mooshik Won
 Harrisburg, PA

CONTENTS

Board Members

Phoenix, Arizona
 Los Angeles, California
 Denver, Colorado
 Wilmington, Delaware
 Atlanta, Georgia
 Chicago, Illinois
 Honolulu, Hawaii
 Baltimore, Maryland
 New York, New York
 San Jose, Northern California
 Portland, Oregon
 Harrisburg, Pennsylvania
 Philadelphia, Pennsylvania
 Memphis, Tennessee
 Dallas, Texas
 Richmond, Virginia
 Seattle, Washington
 Washington, D.C.
 Calgary, Canada
 Ontario, Canada
 Quebec, Canada
 Vancouver, Canada

6. President's Message
7. Chairman's Message
8. Congratulatory Messages From Gyeongsangbuk-do Governor Kim Kwan Yong
9. Congratulatory message from CoCa-Cola, Inc.
10. Congratulatory Messages From Local Chpters
14. Chapter News
19. National KAGRO Looking BACK
20. KAGRO PHOTO GALLERY
22. KAGRO Supporters
24. Industrial News
27. U.S.A. News
31. The Story of Life
39. Book to Read
42. Board Members & Sponsors

Editorial Staff

Publisher
 Juhan Kim

Editor
 JeongA Hong

Art Director
 Sean Hong

Korean Translator
 YongGul Park

Journal Advisor
 HeeDon Kim

National KAGRO is a member of the FMI Association Council and a member of the NGA Association Council.

National KAGRO 창립18주년을 맞이하며... Celebrating 18 Years of National KAGRO



김주한 회장
President of National KAGRO
Juhan Kim

미주 한미 식품상 총연합회가 발족 된 지도 벌써 18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선배님들의 봉사와 활동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격려와 아낌없는 협조로 오늘까지 오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인 이민 1세대들이 많이 해온 식품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20여년이 넘는 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0여개를 제외한 나머지 협회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없고 목적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직 회장님들의 뜻을 새기고 보다 나은 협회 회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하는 협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협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봉사자들의 의지와 회원들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워싱턴주와 오레곤주에서 실행하고 있는 공동구매 즉 IFC 프로그램 도입을 각 지역협회에서도 실행에 옮기기를 권고드립니다.

말없이 지켜보는 많은 회원 여러분을

위해 우리는 사심을 버리고 협력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합으로 협회를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전국 각지에서 주류사회에 봉사하고 협력함으로 KAGRO도 주류사회에 협력하고 이끌어가는 실력 있는 KAGRO가 되어서 각 지역사회에 한인들의 긍지와 능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참여하면 KAGRO회원으로써 자부심을 갖을 수 있고, 우리는 미 주류사회의 일원으로써 자리매김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밝은 내일을 위해서 화합되는 KAGRO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힘차게 노력합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사업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It has already been 18 years since the official unveiling of our International Korean-American Grocers' Association; and I would like to once again thank our successors as well as all our KAGRO members for your unfailing support and collaborative efforts in bringing us to where we are today.

There has recently been a substantial de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taking advantage of our grocers' association-one that we first generation Korean immigrants established.

Of the various regions that KAGRO encompasses, there are many chapters with histories surpassing twenty years. However, there are far too many that are not developing programs for its

constituents and existing aimlessly without any objectives.

We must begin to build greater ties within the chapters creating programs and relationships with KAGRO members and the chapter representatives.

In order for our association to grow and reach our objectives, our volunteers and members must work cooperatively with each other.

In order for the current financial downturn to be alleviated, it is recommended that other regions turn to the "cooperative buying initiative (IFC)" being implemented in the Washington and Oregon areas.

We must act selfless in our efforts to harmonize and work together in the interests of the many members who watch our actions quietly in the background; to that effect I urge everyone's tireless efforts and cooperation in reaching our objective.

Through our actions in our local communities, as well as KAGRO's actions in its respective divisions, we will be able to exert pride and show the abilities of Korean Americans to our neighbors throughout the community.

I believe that with unified hearts and minds, KAGRO members from all over will be able to gain ground and become the pillars of the Korean Grocers' Organizations.

I would like to take this time to once again thank our member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for their hard work and dedication. Let's all look to the bright future with full trust in our destiny. May you and your family be healthy and prosperous in all your future endeavors.

제36차 Los Angeles 총회를 맞이하면서...

Looking forward to the 36th Annual Los Angeles Conference



한 용 웅 이사장
Chairman of National KAGRO
Han, Yong-Wong

연 3주째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더니, 오늘은 45도의 포근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꽃피고 새가 우는 춘삼월이 돌아 왔습니다.

National KAGRO가 탄생된 지 벌써 18주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Journal은 그 동안 우리 협회 소식과 임원들의 소식을 알려주고, 미국내의 여러 사정과 우리들이 알고자 하는 여러 법규와 규정들을 그때 그때 회원 여러분들께 유익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18년 짜면 담배를 살 수 있는 준 성인이 되었으니 준 성인에 맞는 우리의 자세와 잡지 내용이 담겨 앞으로 좀 더 알차고 짜임새 있는 협회지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이번 Los Angeles 총회는 우리와 MOU를 맺은 경상북도의 김관용 지사님께서

도 우리 총연의 총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총연의 각 협회장님과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내용에 대해서 의논하고 서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의논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부산 제35차 총회 때보다는 좀더 발전하고 유익한 내용들의 의견이 교환되고 새롭고 친취적인 의견이 많이 나와서 협회가 발전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총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협회 회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또한 하시는 모든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After 3 weeks of below-freezing temperatures, it finally reached a pleasant and welcome 45 degrees today; as March arrives, the birds chirp in the air, and the flowers begin to blossom.

It has already been 18 years since the National KAGRO was made a reality. Since then, The Journal has been keeping our members informed on all the breaking news, situations that affect our members and many other current events from the world around us.

Eighteen is the age at which a person is considered an adult and can purchase cigarettes. And as The Journal turns

eighteen, so does KAGRO, and with that the responsibility and attitude expected of a maturing Organization.

Governor Kwan Yong Kim of Kyungsangbuk Province will be in attendance at this year's Los Angeles Conference. As you recall, Governor Kim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at last year's international Conference with KAGRO, and we hope for many open-minded discussions and planning for a most successful partnership between both signatories.

I hope that this coming conference may yield even greater and detailed results furthering the relationship that was birthed at the 35th annual conference held in Pusan, Korea last October.

And as always, may the best of health and fortune stay with you and your families.

미주한미식품상총연합회창립 제18주년 기념축사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존경하는 미주한미식품상총연합회(National KAGRO) 회원 여러분!

오늘 뜻 깊은 창립 18주년을 맞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세계 각지에서 한국과 세계 경제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시는 여러분이 한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울러, 1989년 비영리단체로 출범한 이래 오늘날 25,000여 회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해 연 매출 180억 달러에 달하는 최대 한인경제단체가 되기까지는 김주한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주한미식품상총연합회 회원 여러분!

세계경제는 단순한 무역의 차원을 넘어 하나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인이 교류하고 투자하는 글로벌한 경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활동은 더욱 강화되고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인에게 무역은 국경이 없지만 민족은 영원합니다.

실제 대만의 급속한 경제성장이나 최근 중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는 화교상인들의 영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민선4기 경북도지사로 취임하면서 경제가 살아 숨쉬고 돈이 모이는 '부자경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National KAGRO와 우리 경상북도는 지난 11월 1일 부산 BEXCO에서 MOU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상품이 지구촌 곳곳에서 팔려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2007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경상북도 방문의 해」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도는 민족최초로 통일을 주도하여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웠고, 현재는 건강한 생태환경 그리고 청정한 동해바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경상북도로 오십시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해외동포들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도 끈끈한 조국애와 응집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의 전진기지로 때로는 우리민족 문화의 파수꾼으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상북도의 응원군으로 세계속의 경상북도가 되는 튼튼한 기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발전이 바로 경상북도 나아가 한국의 발전임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기념행사가 우리민족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창립 제18주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COCA COLA USA
National Asian Marketing Executive
Thomas D. Lee



Thomas D. Lee

March 01, 2007

Dear KAGRO Members,

Warm greeting to everyone celebrating the seventeenth anniversary of the KAGRO Journal.

Many innovative changes in retail business for the last decade have so profoundly defected Korean lives and business practices as the KAGRO Journal grows from its infant stage seventeen years ago. The Journal has given us as extraordinary means of communicating with one another, drawing the KAGRO community closer, and reminding all of us how much we need and can learn from each other. Today, thanks to the Journal for playing a vital role of binding thousands of KAGRO members together and letting us share their experiences and learn industry news to maintain keen business strategies through valuable information and news.

In addition, I, as a Coca-Cola North American representativ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members of KAGRO and other Korean retailers throughout the country for your support of the Coca-Cola company for over a decade.

For seventeen years, the Journal has helped our KAGRO community to achieve its goal of informing members and helping them bad a part of American entrepreneurs. I comment the stags of the Journal for your leadership in this endeavor and for you dedication to the success of the KAGRO community,

Best wishes for a memorable anniversary celebration and for continued success.

Sincerely,

National Asian Marketing Executive
Thomas Dong Lee



KAGRO of New York
 회장 강병목

공동된 이익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없었다면 각자에게 묻어 나는 진지함은 없으리라.

총회가 있다는 서신을 받을때면 설레임이 앞선다.

친숙한 얼굴들을 또 다시 만난다는 기쁨과 몇 일간을 함께 지내며 좋은 이야기를 나눌 귀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각 Chapter마다 작은 성과에 겸손해 하며 지난 활동을 보고하고 소망이 담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진지한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

두달마다 한번씩 정성껏 만들어 보내주신 Journal을 받는다. 전해지는 Chapter들의 활동 소식이 반가워진다. 다 읽은 순간 만든이들의 노고가 떠올러지고 내 작은 모습이 부끄러워진다.

명색이 큰 도시인 New York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총회와 Journal을 위해선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스스로 반문하며 김주한 회장과 한용웅 이사장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안함에 이번에도 보내주신 Journal을 잘 받았다는 전화 한통 못한 내 자신이 초라해진다. National KAGRO 창립 18주년을 맞는 올해 비록 작은 몸이지만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적은 도움이라도 찾아 할 참이다. 우리들의 대변자 미주 한미 식품상 총연합회의 창립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캐나다 실업인 총연합회
 회장 김영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 가정에 다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오늘의 Journal이 있기까지 수고해주신 역대 회장단 및 이사장 그리고 임원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생소한 미주지역으로 이민의 언어 및 생활습관이 다른 데서

정착하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KAGRO 회원 여러분에게 한권의 Journal은 참으로 의미가 여러 면에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 정보 등을 망라한 Journal은 치열한 경쟁에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창간 18주년을 회원 여러분과 자축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KAGRO of Oregon
 회장 음인숙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며 별의 별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스트레스 또한 가실 날이 없는 정말 힘든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업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로서리인들이 모여 만든 KAGRO

National KAGRO 창립 1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현 김주한 회장님, 한용웅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지난 17년간 본 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어진 역대 회장님들과 이사장님들께도 오레곤 KAGRO의 전회원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로서리인들은 일 평균 15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제한된 업소 공간내에서

가 미국 어느 주를 보더라도 가장 모범적인 한인 단체로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만행적인 National KAGRO의 든든한 지원의 덕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오레곤 챗터에서는 작년 11월 부터 KAGRO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독립프랜차이즈 (IFC)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FC 프로그램이란 우리 KAGRO 회원들이 뭉쳐서 공동으로 구매를 함으로써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매업체들로부터 보다 양질의 서비스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이익 창출 프로그램으로서 KAGRO 만이 할 수 있는 특유의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챗터에서는 보다 완벽한 IFC 프로그램의 기초를 위하여 지난 3개월 동안 4차례의 공청회와 10여차례의 임원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특정 도매업체들과 무리하게 독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원들간의 갈등을 조성하

가 미국 어느 주를 보더라도 가장 모범적인 한인 단체로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만행적인 National KAGRO의 든든한 지원의 덕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오레곤 챗터에서는 작년 11월 부터 KAGRO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독립프랜차이즈 (IFC)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FC 프로그램이란 우리 KAGRO 회원들이 뭉쳐서 공동으로 구매를 함으로써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매업체들로부터 보다 양질의 서비스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이익 창출 프로그램으로서 KAGRO 만이 할 수 있는 특유의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챗터에서는 보다 완벽한 IFC 프로그램의 기초를 위하여 지난 3개월 동안 4차례의 공청회와 10여차례의 임원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특정 도매업체들과 무리하게 독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원들간의 갈등을 조성하

기 보다는 판매력이 강한 단일 제품의 공동구매를 통한 할인 구매쪽으로 방향을 잡아 차근 차근 진행해 감으로써 가능하면 올해내 전 회원들이 IFC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해하여 동참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더욱 절실하게 National KAGRO에 당부드립니다. 하물며 저희 오레곤주내 300여 회원들

만의 단합된 구매력만 가지고라도 도매업체들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National KAGRO가 중심이 되어 다른 챗터들까지 함께 공동구매를 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National KAGRO의 힘찬 도약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CA National KAGRO 회장 김복기

National KAGRO 창립 18주년을 축하합니다.

미주 전역과 캐나다, 하와이를 커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 봄 총회로 로스앤젤레스를 찾아주신 National 임원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주만 해도 약 4,000명의 회원이 리커와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때 그 힘은 엄청난

구매력의 Power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부 몰지각한 KAGRO 인들의 잡음이 끊이지 않아 2002년에 가주 KAGRO 가 National 본부로부터 제명되어 미주한미식품상총연합회 가주지부가 결성되었습니다. 저는 미주총연가주지부 단체를 이끌어오면서 벤더들과의 원상복구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를 나눔으로써 매년 향상된 모습으로 장학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KAGRO인들의 권익을 위해 서로가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National KAGRO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KAGRO of Washington D.C 차명학

It is my pleasure to send greetings from the nation's Washington, D.C. The Washington, D.C chapter is now a united KAGRO combining KABA(Korean American Business Association) With the nationally recognized KAGRO to serve the members of greater Washington D.C area Which include Northern Virginia, District of Columbia and part of Maryland, There is great deal of work ahead of us to regain the confidence of the members who once left the organization.

Recently there was an unfortunate incidence in Prince Georges County, Maryland where a storeowner was killed during a robbery. The DC KAGRO immediately put up a \$5000 reward money for anyone with the information that will lead to arrest and conviction of the criminals. Within 14Days, two suspects are in custody for a trial. We wanted to send a message to anyone

who harms fellow Korean retailers that there would be a grave consequence for committing such an acts toward Korean.

One of the first activities that the new DC KAGRO is doing is to have all wholesalers to stop adding, "fuel surcharges". When the hurricane Katrina disrupted the oil supply, it was understood as a temporary step to pre-Katrina days but most of the wholesalers are still charging fuel surcharge. This should be stopped.

The next plan of action is to have certain manufactures to stop pre-pricing the products. The retailers should dictate what prices to charge. The Washington, D.C KAGRO is now actively seeking participation from the 500 members in co-op purchasing and rebate programs. Hopefully when this year is over we can look back and see the progress that we have made as a powerful united KAGRO.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serve the people who deserve so much.

KAGRO of 워싱턴 회장 홍진섭

2007년 정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모든 회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National KAGRO의 창립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한인 이민 역사 100년이면 앞으로 100년을 창조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근면한 한인들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National KAGRO와 인연을 맺은 지 십 수년 되었지만 요즘은 더욱 더 KAGRO Chapter로서 자부심을

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Thanksgiving 터키 모금 행사에서는 워싱턴D.C KAGRO가 동참하여 지역 방송사에서 자세히 소개 되었습니다.

National KAGRO는 미주 한인 단체 중 가장 조직적이고 활성화 되어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National KAGRO는 CANADA와 미주시장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 Chapter 여러분께서는 미주 한인 식품상 총연합회 김주한 회장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AGRO of Virginia
 회장 이시경

미주 지역은 물론 캐나다 지역 모든 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미주식품상 총연합회의 18주년 창립을 축하합니다. 아직 많은 업소들이 영세 사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2만5천 회원과 가족이 있기에 가슴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고, 점점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경쟁상대를 무시해서도 안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들고 도는 것이 세상사라 말했습니다. 대형체인들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

다. 그들 또한 상당한 리스크(Risk)를 안고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형업소나 여러 체인점들도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주식품상 총연합회는 더욱 단합하고 발전하여, 근래에는 1.5세대와 차세대의 활동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 이민 1세들의 피와 땀이 결코 헛것이 아니며 차세대로 사업이 연결된다면 머지않아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 유통산업은 더욱 거대해지고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아직 우리들이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라 하겠으나, 우리 총연을 중심으로 정보교환은 물론 근면 성실한 우리들의 기본 재산을 바탕으로 날로 번창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다.



KAGRO of Harrisburg, PA
 회장 한영웅

National KAGRO의 창간 18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특히, Journal은 우리 National KAGRO를 증표(대표)하는 것은 물론 미국내에서의 모든 경제 동향을 각 회원들에게 알려 줄 뿐만 아니라 각 Chapter의 New 및 우리 회원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대체로 우리들은 National KAGRO Journal를 마주할 때 목차, 내용 등을 대충 읽고 일반 잡지나 신문들 틈새에 같이 끼워두기 쉽다. 그러나 Journal이 한 권 탄생 할 때까지의 많은 정성과 공을 생각한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몇 번을 읽어도 모자란다.

나는 Journal를 마주할 때마다 만든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National KAGRO Journal에는 알찬 내용이 많이 실려있다. 유

익한 생활정보, 건강 및 사업상에 필요한 많은 정보들은 물론이고 각 Chapter에서 일어나는 활동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나는 책을 읽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읽고 있다. 하나는 흥미 위주로 책을 읽는다. 소설, 수필 그리고 전기들을 읽으며 얻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흥미를 주로 해서 읽는다.

또 다른 하나는 정보를 얻고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읽는다. Text book이나 전문서적이 그렇다. 나는 우리 National KAGRO Journal을 정보를 얻고 배우려고 읽는다. 그래서 일반 잡지와는 다르게 분리해서 모아둔다. 무엇이든 만들어지는 것에는 생명이 있든 없든 산고가 있기 때문에 만든 사람의 인고의 숨결이 깃들여 있다, 회원들이 한번쯤은 Journal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상해 보길 바란다.

회원 여러분의 National KAGRO가 이제 18살지만 제법 어른티를 내며 효도를 하고 있다.

KAGRO of 조지아 회장 최명호

National KAGRO 창립 18주년을 기념하는 협회 잡지가 발간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 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식품상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김 양일 초대 회장님을 비롯하여 현 김 주한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역대 회장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18년동안 어려운 고비도 여러차례 넘겼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렇지만 역대 회장님들 이하 임원진 모두 잘 견디어 내셨고 특히 협회의 얼굴이랄 수 있는 잡지를 중단하지 않고 지금까지 발간해 오신것은 큰 업적이라 할 것입니다.

협회 잡지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신 편집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 정진하셔서 더욱 알찬 협회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먼 이곳 조지아에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KAGRO of Maryland
회장 박갑영

National KAGRO 18주년에 부처, 총연의 자화상을 그림시다.

김영일 회장님을 시작으로 전기풍, 김치현, 구군서 그리고 현 회장님을 지켜보면서 그분들의 협회에 대한 애착과 노력 그리고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순간순간 아픔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으며, 때론 울분도 토하면서 남몰래 눈물도 흘렸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18주년을 자축할 수 있음은 역대 회장단은 물론이거니와 각 지역 회장단의 적극적인 협조임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름답고 소중한 지난 일들을 이제 접어두고, 성년 총연의 앞날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 그러기 위해선 첫째, 그 동안 꾸준히 동반자가 되어준 협력업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총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회원 업소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양질의 상품을 적정가로 공급 가능케 하고, 간접적으로는 회원이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과 정부와의 관계를 개선, 발전시켜서 사업장을 보호하는 방패막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지역행사 지원 및 장학사업으로,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연 18주년을 맞이하여 총연 집행부는 물론 각 지역 회장단 및 동업자 모든 분들과 미래의 총연 자화상을 그리는데 모든 메릴랜드 회원과 함께 적극 동참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KAGRO of Arizona 회장 최인준

재미 식품상 협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두번이나 강산이 변했을 세월속에서 협회 회원들은 계속되는 불경기 타격을 위해 남보다 더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전직 회장단 및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협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후원회사와 단체에 격려와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지금은 명실공히 미주의 식품상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시대와 발맞추어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실질적인 협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몇해를 돌아보면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하는 일이 광범

위해 지는 것을 총회에 참석할 때마다 느껴왔습니다. 지금은 근 3만명에 가까운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그 어떤 단체보다도 실질적이고 회원의 이익에 관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회원들의 성실함과 근면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여러분, 더 열심히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 고 있는 곳에서 힘써 일합시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원더풀 코리아' 로 인정받는 한 조각이 되기를 바라며 작은 소망을 마음에 심습니다.

앞으로 2007년을 맞이하여 안으로는 회원간의 화합과 단합이 더욱 견고해 지기를 바라도 밖으로는 종사하는 곳에서 타민족에게 모범이 되고 한국인의 긍지를 심을 수 있는 협회 회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National KAGRO 창립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hapter News

뉴욕 협회 소식

❖ 제14대 전반기 제6차 이사회 결과

1월 23일 오후 8시에 이사회가 협회 사무실에서 열었다. 2006년도 8월 부터 12월 까지의 감사 보고가 있었다.

주요내용은 Tuscan 사와의 우유 공동구매에 관한 것이었다. 300 이상의 종전 멤버와는 달리 260 정도의 사업체만 공동 구매를 하고 있어 협회와 사업체로 돌아가는 Rebate이 많이 줄었다. 더 많은 회원사의 참여가 요구된다. Haagen-Dazs 사와도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검토 해본후 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 신년 하례식

2월 16일 저녁 7시에 대동 연회장에서 신년 하례식이 있었다. 눈이 많이 내렸었던 관계로 Traffic 이 심하여 예정대로 7시에 시작은 못했지만 많은 내빈과 이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하례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Tuscan 회사, FritoLay 회사... 등등 많은 사업체의 대표분들도 오셔서 자리를 빛냈고, 특히 강 병목 회장님께서 Tuscan회사에게 동결된 우유값과 많은 성원 그리고 성금 주심을 감사한다고 말했다. 뉴욕 식품협회에서는 자비원, 무지개의 집 그리고 코리안 커뮤니티에 각각 \$3,500씩 성금을 전달하고 학업이 뛰어나고 열심히 공부하는 신쌍동이 남매에게도 \$1,000 의 장학금을 전달 하였다.

워싱턴주 협회 소식

❖ "IFC 회원가입 확대가 관건"

필립 모리스 초청 IFC 회원 공청회 개최

"몽쳐서, 구매력을 키우면 결국 우리에게 이익이 돌아옵니다."

1월 18일 페더럴웨이 워싱턴주 KAGRO 사무실에서 열린 IFC(독립 프랜차이즈) 회원 공청회에서 이주영 회장은 "IFC 회원가입 확대가 결국 각 그로서리 업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필립 모리스'사의 새 프로모션 설명회와 2007~2008년도 아이스크림 공급업체 선정을 겸해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 이 회장은 "몽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공급업체들에게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요구할 수 있다"며 "현재 450여 업체에 달하는 KAGRO협회 소속 IFC 회원 숫자를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필립 모리스사의 채드 렉키 지역 매니저는 '진열대 교체시 줄 수 있는 8달러 바이다운 프로그램'과 인벤토리 분석 서비스 등 새로운 프로모션을 선보였으며 "KAGRO IFC 회원업체들의 필립 모리스 제품의 판매율이 2004년부터 3년 내리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는 오히려 판매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AGRO는 공청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결정에 따라 협회 공식 아이스크림 공급 업체를 '드라이어스'로 바꾸기도 했

다. 공청회에 참석한 협회 회원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프로 모션 내용을 공급사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고 문제점을 그 자리에서 지적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평했다.

워싱턴 D.C 협회 소식

❖ 워싱턴 D.C KAGRO 첫 총회

“통합 시너지로 한인상인 권익옹호”

지난해 워싱턴 한인 비즈니스협회와 전격 통합을 선언한 워싱턴D.C KAGRO가 1월28일 임시 총회를 열고 통합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워싱턴 식품 주류협회는 명실 공히 워싱턴 지역 전체 한인 상인들을 대표하는 권익 옹호단체로 거듭나게 됐다. 워싱턴 식품 주류협회는 이날 오후 애난데일 한식당 한성옥에서 통합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신규 회장이·취임식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 큰 성황을 이뤘다.

통합 워싱턴 식품 주류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차명학 전 워싱턴 비즈니스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회원들이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두 단체간 조건 없는 통합이 가능했다”며 “앞으로 더 강화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더 큰 일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차 신임회장에게 협회기를 넘긴 홍진섭 전 워싱턴 식품 주류협회 회장은 “새 집행부 출범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협회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 식품 주류협회는 2주 뒤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 선출 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 워싱턴 상인단체 통합 "시너지 효과 실감"

차명학·홍진섭 회장

“하나로 합치니까 벌써 힘이 훨씬 세진 게 느껴져요.”

▶ 지난해 전격 통합선언을 통해 한인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준 워싱턴 한인비즈니스협회(KABA) 차명학 회장과

워싱턴 식품주류협회(KAGRO) 홍진섭 회장은 ‘통합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1년 넘게 한인 직원 채용을 요구했지만 계속 핑계만 대면서 차일피일하던 DC 시정부 복권국이 지난달 말 한인직원을 채용하기에 이른 것. 두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한 지역에서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단체로 나뉘어 활동하면 대외적 협상력만 낮아질 뿐”이라며 “단합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간추린 일문일답.

▶ 지난해 통합 선언의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데.

홍진섭 (이하 홍) “그 동안 두 단체가 DC에서 함께 활동하다 보니 시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협상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한마디로 힘이 실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통합 뒤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차명학 (이하 차) “지난 연말 DC 시정부 복권국 국장이 직접 가게로 찾아와 한인 직원을 고용했다고 ‘보고’ 하고 가더라. 1년 넘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한인 상인들의 요구를 외면했던 복권국 책임자가 말이다”

▶ 두 단체간 통합 추진 배경은.

차 “한 도시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단체로 나뉘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통합을 통한 여러 시너지 효과가 많을 것 같았다. 예를 들어 KABA로선 전국 조직인 KAGRO의 네임 밸류가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

홍 “우선 회원수가 늘어나 공동구매 등 한인 상인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였다. 또 각 제조업체들로부터 지원을 받아내는 데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 통합 과정서 어려움은 없었나.

차 “맨 처음 통합 얘기가 나온 것은 1년 전 쯤이다. 약간의 걸림돌이 없지는 않았지만 조건 없는 통합을 통해 두 단체간 이해 충돌을 막으려 애썼다”

홍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데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았겠다”

▶ 앞으로의 계획은.

홍 “점차 DC내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한인 1.5세 2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주축이 돼 단체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해줄 생각이다”

차 “많은 사람들이 다시 통합된 DC 한인 상인들의 단체에 기대를 갖고 있음을 안다. 소식지를 2개월마다 발행하는 등 한인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숨진 노승훈씨의 용의자 검거를 위한 현상금 5000 달러 제공**

지난 1월 27일 오후 3시 30분쯤 메릴랜드 포트 워싱턴 소재 ‘포트 워싱턴 리커’의 총격 사건으로 숨진 노승훈씨의 친구들이 직접 추모 펀드(memorial fund)를 조성하는 동시에 추모 웹사이트 (<http://www.hoonnofund.org>)까지 개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추모 펀드는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NBC 4 등 주류 신문·방송에 소개되고 있으며 웹사이트는 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총격 사건의 범인 검거를 위한 현상금 모금에도 한인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워싱턴 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차명학)는 31일 임시 회장단 회의를 열고 5000 달러를 이번 사건의 용의자 검거를 위한 현상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KAGRO측은 이와함께 범죄 피해자에게 최고 4만5000 달러가 지원되는 메릴랜드 범죄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Crime Victim Assistant Program) 혜택을 노씨 가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돕고 있다.

P.G 상공인 협회 박태영 회장은 “워싱턴 식품 주류협회(KAGRO) 차명학 회장이 선뜻 5000달러를 현상금으로 내건다는 소식에 너무 고마워 일일이 업소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승훈·승열 형제 총격 사건 용의자 검거를 위한 현상금은 경찰이 내건 2만5000달러를 비롯해 한인단체에서 최소 8000달러 등 모두 3만2000달러에 달하고 있다.

❖ **물품업체들과 가격 조절등 협의**

차명학 회장과 식품협회 임원들은 2월 21일 오후 세븐업과 락 크릭 소다 등 음료수를 공급하는 ‘캐나다 드라이 포토맥’사를 방문해 협의를 가졌다.

차 회장은 “이날 모임에서 락 크릭 소다의 도매가격은 꾸준히 올리면서 소매가격은 못 올리도록 해온 회사정책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차 회장은 “이 소다의 소매가격은 지난 10년동안 0.99 달러였고 현재 도매가격은 0.76달러로 이윤이 24%에 불과하다”면서 “적정 이윤인 33%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가격을 조절해 달라고 요청, 고려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이끌어 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캐나다 드라이 포토맥사 관계자들은 “일단 소매 가격을 1.09 달러로 인상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또 음료 소매가격 사전 제한제를 완전 폐지하는 문제도 회사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캐그로 집행부에 밝혔다.

차명학 회장은 이와 관련 “이 회사는 지난 6년 동안 한인단체들과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 락 크릭 소다 가격이 조정되지 않으면 한인상인들이 제품 구입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며 “통합으로 커진 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한인 상인들의 권익 신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매진 맥주병 반품해 주기로**

워싱턴 지역 최대 맥주 도매상인 프리미엄 디스트리뷰터(Premium Distributor)가 판매 과정에서 파손되는 맥주를 반품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잦은 병 파손으로 큰 금전적 손해를 입어온 한인 소매상인들이 큰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워싱턴 한인 식품주류협회(KAGRO-DC)는 22일 오후 한성옥에서 프리미엄 디스트리뷰트사 관계자들을 만나 판매 과정에서 병이 파손돼 버려지게되는 맥주를 도매상에서

반품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밥 존슨 프리미엄 디스트리뷰터 사장은 다량의 맥주를 취급하는 그로서리 소매점 특성상 진열 등 판매 과정에서 파손되는 맥주병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이를 반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음료 소매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

메릴랜드 협회 소식

❖ 화재피해 상인에 위로금

메릴랜드KAGRO가 화재로 인해 업소가 전소된 회원 정근성(44, 엘리컷시티)씨에게 1월26일 위로금을 전달했다.

박갑영 회장은 “충격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협회의 지원이 정씨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캐그로는 회칙에 따라 화재 피해로 가게가 전소된 회원에게는 2000달러, 부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1000달러를 위로금으로 주고 있다.

업주 정씨는 웨스트 렉싱턴 스트리트(805번지)에서 그로서리를 3년간 운영해왔으며 지난 21일 새벽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가게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정씨 가게가 들어있는 건물(주인 도밍고 김)도 화재 피해를 입어 건물을 허물어야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정씨 가게는 약 25만달러, 건물은 약 30만달러를 호가하지만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 받을 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해까지 건물 보험이 있었으나 보험회사들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받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없어졌다”고 애석해 했다.

KAGRO는 이날 정씨에게 협회 위로금 2000달러와 함께 백준빈 전 MD한인회장의 부인 백성옥씨가 별도로 마련한 200달러 등 총 2200달러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협회는 “피해를 입은 정씨를 돕기 원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문의: 410-244-5802(KAGRO 사무실)

❖ 한인담당관 후임 논의 급물살

시정부 KAGRO등과 협의

지난해 말 공석이 된 볼티모어 한인담당관 채용을 위한 협의의 모임이 오는 2월12일 개최될 예정이다. 볼티모어시 대민국 토니 브리지 국장은 최근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회장 박갑영)와 메릴랜드한인회(회장 한기덕)에 초청장을 보내 내달 12일 오전 11시 모임을 갖자고 제안했다.

장소는 시청 2층이며 이날 만남에서 한인담당관 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캐그로 박갑영 회장은 지난 주 본지와 인터뷰에서 “과거 한인담당관의 조기 사임 등 이유로 업무 연속성이 없었다는 문제를 거론하며 한인담당관 채용시 한인사회와 사전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은하 전 담당관 사임 이후 한인담당관이 오래 공석으로 남은 것은 지난해 마틴 오말리 당시 시장이 주지사에 출마하는 등 시정부의 분위기가 어수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말리에 이어 쉴라 디슨 전 시의회 의장이 시장직을 이어받아 새 정부를 구성, 시정부가 안정을 찾으면서 후임자 채용문제를 본격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 보안카메라 적극 활용해야

업소 상대 무장강도 검거율 35%

리커스토어 무장강도 사건으로 노훈성씨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무인 보안 카메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난 19일 메릴랜드KAGRO (회장 박갑영)는 볼티모어시의 무장강도반 스캇 서리오 경관과 미팅을 했다.

서리오 경관은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면 법인 검거율이 높아지고 범인들이 주의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리오 경관은 KAGRO측에 한인 상인들에게 보안 카메라 설치시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설치할 때 카메라를 정문을 보는 방향으로 설치하고,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도록 카메라 위치와 각도를 잡아야 한다는

것. 또한 대부분의 업소들이 조명이 약해 강도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카메라가 있는 곳은 특히 더 조명을 밝혀야 한다.

경찰들은 강도 피해가 있으면 해당 업소나 주변 업소에 보안 카메라의 테입을 요구한다. 범인 색출에 결정적일 수 있는 보안 카메라 녹화 테입은 그러나 업소의 무관심으로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 획득이 불가능할 때도 많다고 한다. 서리오 경관은 “볼티모어시의 경우 지난 2006년 680건의 커머셜 무장 강도가 발생했고, 이중 75%가 리커스토어, 그로서리 및 개스스테이션 등의 업소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이중 검거율이 35% 밖에 되지 않으므로 상인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필라델피아 협회 소식

❖ 2007년도 제1차 식품안전위생교육 안내 (신규 및 재교육)

다음과 같이 2007년도 제1차 식품 안전 위생 교육을 실시 합니다. 필라델피아 식품협회는 2007년도 신규교육 대상자와 재교육 대상자를 위한 식품안전 위생 신규교육 및 재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교육장소 : 필라델피아 한인회관 1층

주소 : 6101 Rising Sun Ave, Philadelphia, PA 19111

식품협회 연락처 : 267-902-2328

신규교육 대상자(총16시간)

(교육일자) 2007년 2월27일/3월6일/3월13일/3월20일(매주 화요일)

(교육시간) 오후 7:00 ~11:00 (4시간)

재교육 대상자 (총8시간)

(교육 일자) 2007년 3월6일/3월13일(매주 화요일)

(교육 시간) 오후 7:00 ~11:00 (4시간)

필라델피아 식품 안전 위생교육에 필요한 서류 품 입니다.
(Computer에서 Download)

(1)식품안전 위생 교육 신청서

(2)필라델피아 시청에 제출 하는 서류 품 입니다

((2) Form은 필라델피아 City에 사업장이 있는 회원에 해당 되는 서류 입니다.)

(3) Food Handling Evaluation Record Log

(각 사업장 마다 비치 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National KAGRO
창립 18주년을 축하합니다.

KAGRO of New York 일동

미주한미 식품상 총연합회의
창립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KAGRO of Oregon 일동

LOOKING BACK

2006

- April National board meeting in Seattle WA-WA Chapter Trade Show
- October national boarding meeting in Busan in South Korea

2005

- January National barding meeting in Dallas Texas-Juhan Kim was elected as national president
- June national boarding meeting in Atlanta Georgia

2004

- January national boarding meeting in Je-Ju island in South Korea
- June national boarding meeting in Los Angeles California

2003

- January national board meeting in Honolulu, Hawaii
- June national meeting in Vancouver, Canada

2002

- January National board meeting in Portland, Oregon
- July National boarding meeting in Philadelphia, Pennsylvania
- October national KAGRO takes part in the Korean World Business Meeting

2001

- January National boarding meeting in Miami, Florida Andrew Ku elected as national president KAGRO-Quebec incepted
- June National board meeting in New York City, New York Installation of new officers National KAGRO Journal moves to new office

2000

- January National board meeting in Dallas, Texas
- May Tennessee chapter franchises its membership stores
- June National board meeting in Memphis, Tennessee

1999

- January National board meeting in San Jose, California David H. Kim re-elected to seat of national president
- June National board meeting in New York KAGRO-Calgary, Canada incepted

1998

- January National board meeting in Phoenix, Arizona
- June National board meeting in Ontario, Canada

1997

- January National board meeting in Las Vegas, Nevada
- June National board meeting in Los Angeles, California Installation of new officers

1996

- Launched KAGRO family Card with JCB International Credit Card Co.
- National KAGRO officially changes its classification to foundation
- Marketing service dissolved
- January National board meeting in Honolulu, Hawa
- May National board meeting in Denver, Colorado
- June West side office moves to downtown Los Angeles

1995

- January National board meeting in Memphis, Tennessee
- May National board meeting in Baltimore, Maryland
- October food and trade buying show in Los Angeles, California

1994

- Support gained from the Korea Trade and Distribution Center (KTDC)
- January Participation in first National Korean American Political Conference (KAGRO Makes contribution to participating government officials)
Delivery of relief supplies to earthquake victims in Los Angeles, California
- **April** Participation at the Seoul international Food Show
- **May** Participation at the FMI Convention in the Korean Pavilion National board meeting in Chicago, Illinois

1993

- Co-op purchasing corporation established
- February Signing of national Profit by Association agreement with AT&T
- May National board meeting in Portland, Oregon
- July National officers recognized for dedication to Asian Empowerment by the Leadership Education for Asian Pacifics (LEAP)
- October Participation at the Seoul International Chain Store Show
- December National board meeting in Dallas, Texas

1992

- Establishment of a marketing service to publish the National KAGRO Journal and to assume public relations for the organization
- May National board meeting in Atlanta, Georgia
- July Signs business agreement with Travelers Express Money Order
- September National food and Trade Show in Anaheim, California (with a portion of the proceeds going to riot relief)
- December National board meeting in New York, New York

1991

- National board meeting and national trade show in Philadelphia, Pennsylvania
- June First publication of the National KAGRO Journal
- September Alliance formed with the Korea Chain Store Association (KOSCA)
- October Alliance formed with the Korean Chain Store Association (KCSA)
National KAGRO participates in the Seoul International Supermarket Show
- December National board meeting in Baltimore, Maryland

1990

- May First National board meeting in Seattle, Washington
- December Second National board meeting
Los Angeles, California

1989

- National KAGRO legally formed

1897

- Initiative developed to form a national Korean American grocers organization

KAGRO 포토 갤러리

2006년을 돌아보며...

제34차 미주 식품상 총연합회 총회 (시애틀, 2006년 4월20~23일)



김주한 회장의 미주 총연 제34차 개회선언



이광규 재외동포이사장, 신호범, 위싱턴주 상원의원, 임용근, 오렌주주 상원의원님과 함께



총연을 주최한 시애틀 협회에 감사패 전달

제5차 세계 한상 대회 및 제35차 미주 식품상 총연합회 총회 (부산, 2006년 10월31~11월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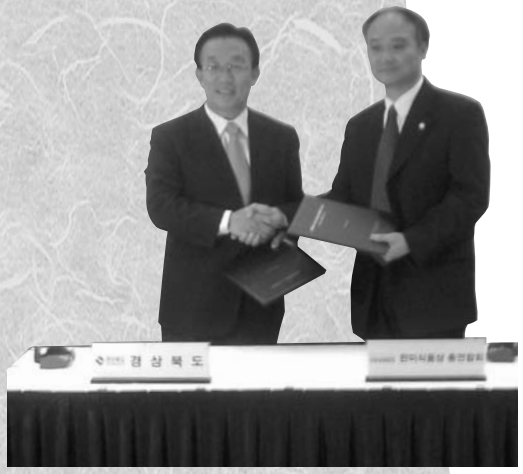


제35차 미주 식품상 총연합회 총회에서 김주한 미주 총연 회장님



미주 각 지역 에서 참석한 철틀 회원들과 함께

경상북도 · 미주한미식품상 총연합회간 업무제휴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경상북도 도청을 방문해서.



경상북도와 상호 협력을 다짐 하면서

미주 한인인날 기념 백악관 및 국회의사당 방문



백악관 미주 한인의 날에 참석한 미주식품 총연합회 (좌)강병목회장, 김주한 총연합회장, 한용웅 이사장, 이승수 부회장, 김현주 이사



미주 한인의 날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을 방문한 미주 식품상 총연합회 임원들

- SPONSOR -

- PLATINUM SPONSOR -

PLATINUM SPONSOR



Anheuser-Busch, Inc.

PLATINUM SPONSOR



Coors Brewing Company

PLATINUM SPONSOR



Coca-Cola, USA

Thank You For Your Support

National KAGRO would like to recognize and express its gratitude to the many companies that have supported the national board meeting in Los Angeles, California. Because of your support, the event proved to be a huge success.

- SILVER SPONSOR -

SILVER SPONSOR



Miller Brewing Company

SILVER SPONSOR



MoneyGram
국제 송금서비스

SILVER SPONSOR



(주) Genesis

SILVER SPONSOR



Paul deLima Co., Inc.

SILVER SPONSOR



Dreyer's Grand Ice Cream, Inc.

- GENERAL SPONSOR -

GENERAL SPONSOR



NexTran Industries, Inc.

GENERAL SPONSOR



Wells Fargo Bank

Industry News

Target plans first food distribution center

Target Corp. said on Wednesday that it is constructing a food distribution center in Lake City, Florida to supply frozen, refrigerated and fresh produce to stores in the Southeast.

Target said the center, which is scheduled to open in late summer 2008, is its first company-owned perishable food distribution center and will be operated in partnership with Supervalu Inc. In October 2003, Target partnered with Supervalu to open a facility to provide frozen, refrigerated and fresh produce items to its stores in the Southwest. Target said it plans to open additional food distribution centers over the next several years

Target이 Florida 동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매장 내에 냉동식품을 포함한 신선한 식품을 유통할 매장을 준비 하고 있다. Target은 Supervalu Inc. 와 손을 잡고 2008년 여름 경 시작될 예정이다. 2003년 10월에 이미 Florida 남서부 지역에서 실시 되었으나, 앞으로 몇 년 안에 더 많은 유통망을 열 계획이다.

Coca-Cola to buy juice and tea maker Fuze

Coca-Cola Co. said on Thursday it would buy Fuze Beverages LLC, maker of several brands of juices and flavored teas. The terms of the deal were not disclosed, but if it receives regulatory approval, the acquisition should be completed during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Coca-Cola said in a release. Fuze makes such drink brands as Vitalize, Slenderize and Refresh. Coca-Cola, known globally for its soft drinks, has bought a number of other brands in the past few years as it attempts to diversify its offerings. Last November it launched a line of iced coffee drinks with Caribou Coffee and in August it partnered up with Godiva Chocolatier on Godiva Belgium Blends chocolate-coffee drinks.

Coca-cola가 주스 생산업체인 Fuze Beverage를 인수할 계획을 밝혔다. 정확한 거래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모든 인수 과정이 올 상반기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Coca-cola는 밝혔다. Fuze는 Vitalize, Slenderize, Refresh등을 만드는 주스 전문 생산 업체이다. Coca-cola는 soft drink의 가장 큰 업체이면서 몇 년 전부터는 Caribou Coffee 와 제휴하여 iced coffee를 선보였고, Godiva Belium Blends의 chocolate coffee 등 아주 다양한 음료를 생산 유통하고 있다.

Signature or PIN?

Banks prefer signature-based debit card transactions, while retailers want customers to use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s (PIN), which can make many shoppers feel like their involved in a tug of war between the two when using debit cards. Debit cards have become the preferred method of plastic, used for a third of all in-store transactions, according to the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For Visa, debit cards are used for two-thirds of all transactions. Visa reports that 76 percent of debit transactions on its network use signatures to complete the payment and 24 percent run through Visa's Interlink PIN network. Banks make more money when customers use signature payments. Rhonda Bentz, a spokeswoman for Visa, told the newspaper that a typical grocery store pays 35 cents in fees when a customer buys \$40 worth of groceries with a debit card and signs for it. The same transaction with a PIN costs 31 percent less. Retailers point to the fact that Visa and MasterCard face virtually no competition as the reason why the signature-debit transactions have higher fees. On the other hand, PIN-based debit transactions are run through ATM networks, which have a smaller presence at retail and have a lot more competition. Companies are starting to steer customers more and more toward PIN transactions. The Food Marketing

Institute has developed a brochure to urge debit card holders to use their PIN, which the group says makes the transaction faster, more secure and allows for a cash back option. Bentz told the newspaper that Visa knows that retailers try to influence more PIN-based transactions. "We allow merchants to steer consumers, but the consumer should make the ultimate decision," she said. She said Visa requires retailers to offer consumers a choice between signature- and PIN-based transactions. Many banks refuse to give reward benefits to card holders who punch in a PIN to pay. Also, Visa's zero-liability fraud policy could be voided when customers pay with a PIN because the transaction can be processed off its network, the newspaper reports. Some banks, including Citizens Bank and Sovereign Bank, steer customers to signature transaction by attaching fees to paying with a PIN. For instance, Citizens charges 35 cents; Sovereign charges 50 cents. Both banks say they are now phasing out their PIN penalties.

Visa의 Rhonda Bentz의 말에 의하면, 은행은 소비자들이 사인을 하는 결제를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낸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만약 대형마켓에서 \$40정도를 소비한다면, 사인을 하는 거래인 경우 약 0.35 cent 정도 결제용이 생기고, pin 번호를 누르는 거래인 경우 약 0.31 cent 의 결제비용이 든다.

그래서 많은 Retail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Pin 번호를 누르는 결제 방식이 빠르고 안전하다고 권장 하고 있다. Visa 는 어떤 결제 방식 이냐는 먼저 소비자들의 결정이라고 권고 함에도 불구하고, Retailer들은 소비자들에게 적은 비용이 드는 Pin 번호 결제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고 Bentz 는 말한다.

그래서 많은 은행들은 Pin 결제에 대해 Pin 비용을 부과 하는 등 Reward 및 그 외의 많은 혜택 들을 제한 하면서, Sign 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Reward Program등을 포함 더 많은 혜택을 부여 하고 있다.

Interest Continues to Swell for Imported Beers

As interest continues to grow for import beers, beer drinkers can now choose from a wide variety of specialty brews, the Chicago Tribune reports. Beginning this month, Anheuser-Busch Cos. will be the exclusive U.S. importer for the Stella Artois brand, as well as Beck's, Bass Pale Ale, Hoegaarden and

Leffe. The beer giant already distributes Grolsch, Tiger and Kirin. The brewer also announced that it has inked a deal to sell Czechvar Premium Czech Lager, which is already sold in 30 states through other companies. Meanwhile, Miller is expanding distribution of Polish beer Tyskie beyond Chicago and New York. In addition, the company will begin importing Aguila, Cristal and Cusquena. Miller also imports Peroni and Pilsner Urquell. "We haven't even come close to tapping into the global brand portfolio of our company," Miller spokesman Peter Marino told the newspaper.

Consumer demand for imported brews continue to expand as sales for domestic brews decline. For the first 11 months of 2006, domestic beer sales dropped 0.5 percent, while total imports jumped 12.8 percent, according to the Beer Institute.

For example, in grocery stores, sales of import beers advanced 6.3 percent last year, compared with a 1.4 percent decline in overall beer sales, according to data from ACNielsen. But part of that increase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supermarkets offered nearly 10 percent more imported beers last year than they did in 2005. "This is a real consumer shift," Nick Lake, beer analyst at ACNielsen, told the newspaper. "It's not going to be a flash in the pan. Consumers are upscaling across all categories. Look at coffee, ice cream, chocolate."

the Chicago Tribune reports 에 의하면, 최근 많은 사람들이 수입 맥주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Anheuser-Busch Cos. 는 Grolsch 와 Kirin등을 유통 하고 있지만, 올 초부터 Beck's 를 포함한 Stella Artois brand, Bass Pale Ale, Hoegaarden, Leffe 등을 약 30주에 독점 유통을 하기로 하였다. 반면, Miller는 현재 Chicago 와 New-york 지역에 Polish 맥주인 Tyskie 를 유통하고 있으며, 조만간 Aguila, Cristal, Cusquena, 그리고 Peroni 와 Pilsner Urquell 등 많은 수입 맥주를 유통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Beer Institute에 의하면, 소비자의 국내 맥주에 대한 소비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수입 맥주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 나고 있다고 한다. 작년 한해 식품매장에서 판매된 국내산 맥주의 매출은 약 1.4% 감소 하였지만, 수입 맥주에 대한 매출은 약 6.3%의 증가를 보였다. 그 증가분 중 대형 슈퍼마켓에서의 수입 맥주 판매량이 2005에 비해 약 10%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맥주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Coffee, icecream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점점 고급화되고 다양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WELLS
FARGO

EQUAL HOUSING
LENDERS

Each Depositor Protected by FDIC

Wells Fargo에 오시면 미래가 보입니다.

상업 용자 / SBA 용자 / 건물 용자 / 장비 용자 / 주택 용자 / 일반은행업무

Heejin Jung

상업용자

(360)600-7717
(206)355-6244

Su Moran

Regional Manager

(503)886-3113
(360)600-0474

John Hwang

주택 용자

(425)269-6678
(253)815-8378



www.wellsfargo.com



미 국내 소식

새 달러 동전 15일 발행



동전테에 글자를 새기고 앞면에 미국 전직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새 달러화 동전이 75년만에 처음 발행된다고 미국 조폐국이 12일 발표했다. 오는 15일 선보일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 짜리 동전은 테두리에 1955년까지 미국의 구호였던 '여럿으로 이뤄진 하나'(E Pluribus Unum)와 "우리는 신을 믿는다"는 글자가 음각된다고 USA투데이가 전했다.

테두리에 글자를 새기면 동전 표면에 들어가는 초상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표현에 흥미를 느끼게 해 수집가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준다고 조폐국은 설명했다. 조폐국은 테두리에 글자가 새겨진 동전을 1932년에 마지막으로 발행했었다. 조폐국은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서 시작해 재임순으로 1년에 4종씩 전직 대통령의 얼굴을 앞면에 새긴 동전을 발행할 계획이다. 중임을 했지만 연속해서 재임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은 2종에 등장한다. 뒷면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새겨진다. 새 달러화 동전은 아메리카 원주민 여인의 이름을 따 사카가위아 동전이라 불리는 1달러 동전과 색상과 크기가 같다. 사카가위아 동전은 2002년 이후 발행되지 않았으나 인기가 없어 1억1천만달러가 재고로 쌓여있다.

뉴욕 핫도그 영업 허가 받기 '하늘의 별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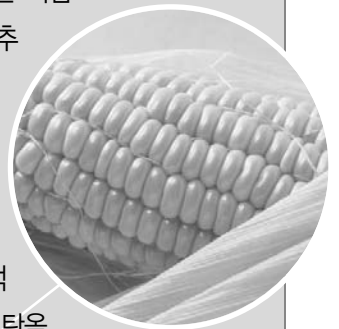
핫도그 비즈니스 오픈 비용이 30만달러?

뉴욕시 정부에서 발급하는 핫도그 비즈니스 허가를 받기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부작용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시로부터 핫도그 비즈니스 허가를 받기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 센트럴 파크 같은 시티 공원 내부에서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경매를 해야 한다. 또한 공원 외부에서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75~200달러대를 시정부에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센트럴파크내 경매 비용이 치솟고 있는 것. 경매 입찰 최소비용은 3년에 600달러로 규정됐지만 보통 이보다 높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인근 지역의 영업 허가를 위한 경매는 3년에 30만달러까지 올랐다. 이는 3년간 2달러짜리 핫도그를 매일 136개씩 팔아야 한다. 또한 공원내 다른 프리미엄 지역의 영업허가 경매는 3년에 10만달러부터 시작하고 있다. 공원 외부에서 영업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비용은 저렴하지만 대기자가 밀려있어 언제 허가가 나올지 모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독점 기업이 나타나기도 했다. 센트럴파크내 60개의 카트 중 대부분이 뉴욕원이라는 회사 소유다. 이 회사는 고용인들 사이에서 '악덕 기업'으로 유명하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 시정부는 아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수수 가격 '심상치 않네' 에탄올 사업 각광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가 옥수수 가격을 올린다"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곡물시장 관계자들은 모두 수긍하는 예이다. 우선 국제 옥수수 가격부터 살펴보자. 지난해 옥수수 가격은 작황이 나빴던 것도 아닌데 급등세를 보여 부셸(약 25kg)당 2달러 전후에서 거래되던 것이 10월엔 3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들어서도 오름세가 계속돼 부셸당 3.5달러를 넘어서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유가 국제 금값 등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원자재가 여러 가지라고는 하지만 두 배 이상 급등한 옥수수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다. 식량인 옥수수의 시세를 금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변'이란 말까지 나오는 옥수수 가격 급등의 시초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공급과 수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서부 옥수수 벨트도 투자자들이 넘쳐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도 아니다. 고작 인구 8만명인 미국 일리노이주의 소도시에 위치한 기업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DM)'다. 시카고에서도 차로 3시간 반을 달려야 나오는 옥수수 밭 안에 있는 기업이다. 옥수수 밭에 있는 기업답게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은 식량사업이다. 하지만 본업보다 더 중요한 부업이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추출해 내는 대체연료 사업이다. 바로 이 대체연료 사업이 최근 각광을 받으면서 옥수수 매집에 나서는 기업이 늘었고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셈이다. 여기엔 부시 대통령이 매년 연두교서에서 대체 에너지 개발을 강조하는 것도 한몫했다. 실제로 ADM은 대체연료 사업이 관심을 끌면서 지난 2003년 주당 10달러에 머물던 주가가 현재 세 배 이상 올랐다. 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기업실적 역시 좋아져 곡물업체 1위인 카길에 비해 매출은 절반이지만 순익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ADM의 실적에 자극을 받은 경쟁 기업도 속속 대체연료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농업회사인 CHS 역시 지난 9월 에탄올 공장을 설립하는 등 에탄올 시장 진출을 선포했다. 이달 들어선 카길 역시 미국 4곳에 에탄올 공장을 세운다고 밝혀 일부에서는 난립을 우려하기도 한다. ADM의 성장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미국 정부가 석유를 대체할 자원으로 에탄올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탄올은 옥수수 등을 원료로 추출한다. 중동 남미 등의 산유국에서 끊이지 않는 분쟁으로 원료 수급에 불안감을 느낀 미국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삼게 된 것이다. 여기에 환경보호 매력까지 부각돼 에탄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DM은 2차 오일쇼크가 터진 1979년 에탄올 생산을 시작한다.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석유의 대체자원으로 에탄올에 관심을 가진 것이 계기가 됐다. 여기에 80년대 미국 농업이 심각한 공급초과를 겪으면서 ADM은 에탄올 생산에 박차를 가한 뒤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석유로 무장한 대형 에너지 기업들에 밀려 소형 기업에 머물고 있다. 과연 식량기업이 대체 에너지를 통해 거대 에너지 기업들의 장막을 뚫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세계 최고 브랜드 코카콜라 가치 430억 달러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가진 브랜드에 코카콜라가 선정됐다. 6일 영국 브랜드 가치 평가기관 브랜드 파이낸스(BF)가 런던에서 발표한 '2006 세계 최고 가치의 브랜드' 보고서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는 430억달러로 세계 1위에 랭크됐고 마이크로소프트(370억달러)와 시티뱅크(350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월마트와 IBM HSBC 제너럴 일렉트릭(GE) بانک 오브 아메리카 휴렛 팩커드 말보르 등이 세계 10위권에 들었다. 세계 250대 브랜드 순위를 매긴 'BF 250'에는 미국 브랜드가 112개 유럽연합 브랜드가 92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향후 10년 내에 인도나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브랜드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왜, 올리브유인가?

이미 100% 국산 싱싱닭 시대를 열었던 대한민국 대표치킨 BBQ는 건강에 유해한 지방으로부터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최적의 튀김 오일이 무엇일까 고민 또 고민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리브'가 인간의 세포를 구성하는 주성분인 뇌와 신경조직에 분포되어있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생성시키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피부미용과 노화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BBQ중앙연구소는 세계 최초, 최고의 고품격 건강치킨의 개발을 위해, 3년간 수많은 실험과 연구를 거듭해 드디어 올리브유 치킨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왜, 엑스트라버진인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용유보다 6배 정도 비싼 100% Extra Virgin 등급은 올리브유 전체 생산량중 10% 이내에 속하는 순정등급으로 올리브유 중 올리브유라고 불립니다. 올리브유 본고장 유럽에서도 값이 너무 비싸서 튀김용으로는 감히 쉽게 쓰지 못하고 조금씩 짝어 먹어 귀한 식품입니다.

이런 값비싼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100% 원료로 한 올리브유만 쓰는 이유는 맛뿐만 아니라 고객님의 완벽한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한 BBQ의 새로운 다짐입니다.

Coffee by Paul deLima

THE TOTAL COFFEE SOLUTION



알 아 봄 시 다

‘유효기간’ Expiration date

유효기간(Expiration date)은 제조사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창구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든 이 제품은 앞으로 언제까지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조사에 소비자는 ‘그렇다면 적어도 앞으로 유통기간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군요’ 라고 말하는 대화를 집약시켜 놓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실상 마켓에 가보면 이 유효기간의 ‘변주’는 너무나 다양해 어떤 때 제조사와의 대화가 너무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유효기간이라는 표시 외에도 ‘use by’ ‘best by’ ‘sell by’ ‘best if used before’ 등 그게 그거 같은 너무나 다양한 표기법이 그것이다. 또 이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효한지도 의심스럽다. 만약 28일까지가 유효기간이라면 29일에 그 식품을 먹으면 정말 큰일이라도 나는 것일까. 우리가 평소 애용하던 유효기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다.

■ 유효기간 법적 규제하나

소비자들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FDA는 모든 시판 먹거리에 대해 이 유효기간을 표기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FDA 규정상 유효기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식품은 아기 분유와 몇 가지의 영아들을 위한 식품들뿐이다.

청과류 역시 농무부는 육류와 청과류에 한해 단지 포장된 날짜만을 표기할 것을 규정한다. 물론 유제품에 한해서는 대부분의 주가 유효기간 표시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 유효기간(Expiration date) 언제까지 유효한가

유효기간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유효기간이 하루라도 지났으면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릴 것을 조언한다.

만약 물건을 구입한 후 냉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시간 정도 지난 뒤 냉장고에 넣었다면 이 유효기간이 적어도 이들은 앞당겨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 셀 바이 또는 풀 바이(Sell-by or Pull-by date)

이 표기는 소비자보다는 마켓용 표기로서 그

날짜까지는 적어도 진열대에서 이 물건을 치워야함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이 식품을 바로 그 날짜부터 먹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유들은 대부분 이 표기법을 따르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경우 셀 바이 데이트 이후 1주일 정도는 먹어도 문제없다.

■ 베스트 이프 유스드 바이(Best-if-used-by and use-by date)

말 그대로 이 표기는 식품 최적의 맛을 즐기고 싶다면 적어도 이 날짜 전에는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이 날짜가 곧바로 유효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맛과 풍미가 떨어지긴 하지만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 신선도 보장(Guaranteed fresh)

이 표기 일은 대부분 상하기 쉬운 요리된 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적어도 이 날짜까지는 제조사가 신선도를 보장한다는 의미인데 만약 식품 구입 후 음식이 상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 같으면 즉시 환불 또는 교환을 받을 수 있다.

■ 포장일(Pack date)

주로 캔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이 표기일은 사실 소비자들이 ‘해독’하기는 쉽지가 않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연도(Y)와 월(M), 일(D) 순으로 표기되는데 주로 YYMMDD 또는 MMDDYY로 표기된다. 또 줄리안 넘버(Julian numbers) 표기법도 있는데 이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고유번호를 주는 것이다. 즉 1월1일은 001, 1월2일은 002 순으로 나열되어 12월31일은 365가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캔이나 박스 포장 제품들은 제조사별로 다양한 암호에 가까운 생산일을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회사로 전화해 물어보기 전에는 식별이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제조사들이 암호해독 수준의 제조일과 제조지 제조라인까지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비해 회수 또는 문제 점검이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제조사 측의 설명이다.



■ 병원영어의 기초

- ★ have는 eat나 drink를 대신해서 잘 쓴다.
그러나 “약을 먹다, 혹은 복용하다”는 take 를 쓴다.
Take these pills after meal (식사 후에 이 알약들을 복용 하세요.)
- ★ “~가 아프다” 고 말할 때는 have 를 주로 쓴다.
I have pain in my shoulder. (어깨가 아파요)
I have chills. (오한이 나요)
- ★ “~가 아프세요?”라고 물어볼 때도 have를 주로 쓴다.
Do you have a cold(감기에 걸렸어요?)
Do you have any pain(어디가 아프세요?)
Do you feel chilly(한기를 느끼세요?)
대답은 물론 Yes I have 혹은 No I haven't식으로 한다.
- ★ Catch (get) a cold는 “감기 들다/걸리다” 를 말하는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have a cold는 “감기가 걸려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표현이다.
- ★ “의사에게 진찰받다”는 뜻의 영어는 See a doctor 이다.
- ★ make an appointment 는 “예약을 하다” have an appointment 는 “예약을 해 둔 상태” 를 의미한다.
- ★ prescription은 처방전이라는 뜻인데 의사가 처방한 약(medicine which a doctor orders for you) 이라는 뜻도 있다. 그러니까 take this prescription은 “이 처방약을 먹으라”는 뜻이다.
- ★ 병실을 한 바퀴 돌아보자는 Let's make a round of the ward 이다.
- ★ 중환자는 Intensive care Patient로 가능하지만 문어적인 표현이며, 회화에 서 중환자는 Patient who is serious case 혹은 Patient on the danger list 이다.
- ★ 입원비 : Hospital expenses, 입원수속 : hospital admission procedures.
- ★ 입원 환자 : inpatient, 장기입원환자 : long-stay patient.
- ★ 의료보험 : medical insurance.
의료보험 혜택 : medical insurance benefits.
의료보험 혜택자 : beneficiaries of medical insurance.
의료보험조합 : medical insurance union.
- ★ 의사를 Doctor 혹은 medical man이라고 하며 속어로 Doc. 이라고 줄여 쓰기도 한다.
주로 내과 의사를 Physician, 외과 의사를 surgeon 이라고 한다.
내과 외과 일반을 담당하는 GP General Practitioner 의 약자이다.

■ 병원에서의 기본적인 회화

- Take a deep breath. (숨 크게 쉬세요)
- Breathe out /Hold still. (숨 참으세요)



- Lie down (누우세요)
- Sit up (일어 나세요)
- Lie on your right side. (오른쪽으로 모로 누우세요)
- Lie on your left side. (왼쪽으로 모로 누우세요)
- Lie on your stomach. (앞드리세요)
- Lie on your back. (바로 누우세요)
- Turn over. (돌아 누우세요)
- Get down. (내려 오십시오)
- That is all. (다 되었습니다.)
- That's it. (다 되었습니다.)
- Move forward a little bit. (앞으로 조금만 오십시오)
- Move backward please. (뒤로 가십시오)
- Get this gown on and put on slippers. (이 가운 입으시고 슬리퍼를 신으세요)
- Dressing room's over there (탈의실 은 저기 있습니다.)
- Let me get you someone who speak english better than me.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대려 오겠습니다.)
- Hold tight (꼭 잡으세요.)
- Have you ever had this test before (전에 이검사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 Please don't urinate. (소변 보지 마십시오)
- please retain your urine.(소변 보지 마십시오)
- Neglect calls of nature.(소변 보지 마십시오)
- They're running tests now (지금 검사 중 입니다.)
- Put your forehead(brow) on here 이마를 여기에 대십시오.
- ※ (옷 등을) 착용할 때... Put on, Wear, Have on, Dress in, Get into등을 쓴다.
(무엇을) “들다” 를 Hold , take, have (a thing One's hand)
(무엇을) “들어 올린다 를 표현할때는 raise, lift (up), put up hold up 를 쓴다.
“보호자”는 영어로 a protector 이나 회화상에서 “동행인”으로 물어보는 것이 부드럽다.
- Are you one of party (companion)? (동행인의 한 사람 입니까?)
- Are you his companion? (당신이 그 사람의 동행인 입니까?)

세금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1월말을 시작으로 개인 봉급자들은 W-2, 자영업자들은 1099양식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세금보고 시즌은 서서히 막이 오르고 있다.

2006년 세금보고를 해야 할 납세자들은 올해 이들의 여유가 더 생기게 됐다. 연방 국세청(IRS)은 올 세금보고 마감일을 예년의 4월 15일보다 이틀 뒤인 4월17일로 결정했다.

이번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은 전자 개인세금 보고와 세금보고 6개월 연장신청 등에도 해당된다.

바른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세금보고 자료가 준비돼야 한다.

W-2나 1099양식을 2개 이상 받는 납세자 가운데 종종 이를 누락해 범칙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고용주나 1099 발급자들은 이를 수취인에게 발송하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받지 못했다고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발급자에게 연락해 발급여부와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주식과 뮤추얼펀드 매각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구입가격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거래 기록은 잘 보관해야 할 것이다.

2006년도 세금보고는 1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 특히 주식거래자 중에는 고소득자가 많은데 국세청 감사에서는 1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정밀 감사가 포함돼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해에 새로 생긴 크레딧 중 하나가 장거리전화 물품세 환불(Excise Tax Refund)로 연방세무국은 올해 1억6000만명이 신청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올해 한번에 일시불로 30달러에서 60달러까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라도 양식 1040EZ-T(Request for Refund of Federal Telephone Excise Tax)를 사용해 기본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세이빙 텍스 크레딧'으로 납세자의 주택에 각종 에너지 절약을 위한 증축 및 개선을 한 경우 10%의 크레딧을 주게된다. 전반적으로 최고 액수는 500달러로 새로운 에너지 절약형 차단제나 외부창문 워터티터 히트펌프 센트럴 에어컨 온수 보일러 등이 해당된다.

어떤 고객들은 세금보고를 연장해 늦게 보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단순한 추측일 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이자 및 배당수입, 임대수입 및 파트너십 배당금, 주택 모기지 이자, 재산세, 자동차 등록비, 현금 및 각종 기부금, 자동차 마일리지, 선납 세금 납부액, 주택 매각에 따른 모든 자료, 채용자 서류, 자녀 교육 및 부양 경비, 변경된 주소, 연방 및 주국세청으로부터 각종 통보 서류 등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세금보고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가족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나이이다. 타 주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세(sales tax)를 내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작년과 변함이 없다.

자영업자들은 작년도의 총수입과 지출경비를 항목별로 정리해야 한다. 1099 form을 받는 사람은 1099 form의 수입이 총수입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판매세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은 판매세 보고서 상의 매출액과 총수입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쓴 금액은 사업경비로 세금공제를 할 수 있는데 기계나 장비를 구입했을 경우나 사업체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경비 내역과 날짜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 내역과 임대와 관련된 지출내역이 필요하며 임대를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람은 임대 건물을 샀을 때의 에스스로 서류가 필요할 것이다.

자산을 매각하여 수입이나 손실이 있는 사람은 자산구입시의 금액과 날짜 그리고 자산 매각시의 금액과 날짜가 필요하다. 그 자산이 증권일 경우에는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1099-B form을 잘 준비하여야 하고 집이나 상업용 건물 같은 부동산을 판 경우와 사업체를 판 경우에는 에스스로 서류나 매매계약서

와 소유하고 있는 동안의 보수비용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자수입이 있는 사람은 은행에서 받은 1099-INT form을, 배당금 수입이 있는 사람은 1099-DIV form을, 연금수입이 있는 사람은 1099-R form을, 실업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1099-G form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은 사람은 SSA-1099 form을, 도박수입이 있는 사람은 w-2G form을 준비하여야 한다.

항목별 공제를 할 분들은 의료비용에 대한 지출금액과 작년에 정부에 낸 소득세금액과 재산세 자동차등록세 주택세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 이사비용 직장관련비용 작년세금보고비용 등등을 준비하면 되겠다.

개인연퇴연금이나 SEP 불입액도 점검사항이며 건강보험료와 대학교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낸 학비와 기타비용 그리고 학자금융자에 대한 이자가 있다면 1098-E form을 준비하면 되겠다.

달라진 조항과 주의점

2006년도 세금보고를 위해 사실상 지난 연말에 납세자들에게 큰 혜택이 주어지는 조그만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가 있었다.

2006년 세금 보고서 달라진 규정과 주의 사항을 알아본다.

▲표준공제 등 조정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의 경우 싱글은 전년의 5,000달러에서 5,150달러로, 부부 공동 보고서 1만달러에서 1만300달러로 향상됐다. 미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일 때는 7,300달러에서 7,550달러로 인상됐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개인적 공제(personal deduction) 역시 1인당 3,300달러로 100달러가 늘었다.

▲은퇴계좌(IRA), 상속세 등 공제

50세 이상 로스(Roth) IRA와 전통 IRA의 공제액 한도는 모두 2005년의 4,5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랐으나 50세 미만은 각각 4,000달러로 변함이 없다. 상속세 면제 상한액은 2005년의 150만달러에서 200만달러로 향상됐다. 2009년에는 350만달러로 조정될 계획이다. 비즈니스용 차량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액은 마일리지 당 40.5센트에서 44.5센트로, 의료용 차량 마일리지 역시 18센트에서 20센트로 각각 오르게 된다.

▲학비 세금 공제

IRS는 2006년 세금보고시 대학 학비 등 추가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침서를 발표했다. 연방의회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고등교육 교육비용은 총소득에서 4000달러까지 공제 할 수 있는데 이번 2006년도 세금보고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총소득에서 공제 사항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교육비용은 한가지 비용을 가지고 호프 크레딧(Hope Credit)이나 평생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과는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 주 정부나 로컬 정부에 내는 판매세(sales tax)를 다시금 공제

2004년도에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주 정부나 로컬 정부에 납부한 판매세를 주 정부나 로컬 정부에 낸 소득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항목별 공제에 세금 공제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4년도의 세법에 의하면 이 세금 공제 사항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만 적용할 수 있었고 2006년도부터는 시효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세금 공제 사항이었다. 그런데 지난 연말 개정 세법으로 이번 2006년도 세금 보고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 세법 조항은 올해 2007년도 말에 끝나게 되어 있다.

▲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소득 크레딧(EIC)이 자녀 이상을 둔 경우 최고 4536달러까지고 한 명의 자녀를 둔 경우는 2747달러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 412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해에 새로 생긴 크레딧 중 하나가 장거리 전화 물품세 환불(Excise Tax Refund)로 연방세무국은 올해 1억6000만명이 신청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올해 한번에 일시불로 30달러에서 60달러까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라도 양식 1040EZ-T(Request for Refund of Federal Telephone Excise Tax)를 사용해 기본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세이빙 택스 크레딧'으로 납세자의 주택에 각종 에너지 절약을 위한 증축 및 개선을 한 경우 10%의 크레딧을 주게된다. 전반적으로 최고 액수는 500달러로 새로운 에너지 절약형 차단제나 외부창문 워터히터 히트펌프 센트럴 에어컨 온수 보일러 등이 해당된다.

세금보고시 꼭 알아야 할 팁(tip) 8가지

세금보고시 가장 효과적인 절세요령은 대개 세법을 숙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다. 일부 납세자들 경우 각종 증빙 서류를 빠뜨려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을 챙기지 못해 받아야 할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할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게 회계사들의 설명이다.

① 가족의 소셜번호와 W-2폼(복합명세서) 및 1099폼(커미션 수입)등 각종 명세서를 챙겨야 한다. 소셜 번호가 없을 경우 국세청(IRS)에 되도록 빨리 택스 아이디를 신청해

마감일 전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이름과 소셜 번호가 잘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컴퓨터 처리시 자동적발돼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
- ③ 적은 이자의 주식 배당금이라도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세금보고 자료를 수령했을 경우 필히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은행에서 국세청에 보고된 금액이 있으므로 나중에 벌금과 이자까지 추가된 추징 청구서를 받게 된다.
- ④ 복권 및 도박에서 일어난 손익도 보고하는 것이 좋다. 도박으로 인한 손실과 수입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도박 장소에서 로스 스테이트먼트를 발급 받아 챙겨둔다.
- ⑤ 자녀가 대학 진학 예정이거나 대학 재학 중일 경우 학자금 보조 신청을 위해서는 늦어도 2월 초까지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한다.
- ⑥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년간 사용한 체크와 구매 자료, 그 외의 비즈니스 경비 등을 정확히 준비, 국세청 요구시 언제나 제출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 ⑦ 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편부 또는 편모일 경우 유아원(Day Care School)에 보낸 양육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학원의 텍스 아이디와 주소 등의 정보를 알아둔다.
- ⑧ 병원비 또는 처방전이 있는 약값, 모기지 이자 및 주택구입 포인트, 기부금, 사고로 인한 손실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 공제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세금관련 서류 보관

소득,지출로 분류해 월별로 정리

인보이스 영수증 등과 같은 비즈니스상 구입 판매 급여 그리고 각종 거래를 통해 지원 서류를 작성해야 할때가 있다. 지원서류는 판

매전표 영수증 인보이스 예금영수증 지불된 체크 등이다. 서류 정리는 소득과 지출로 크게 분류한 다음 연도별 월별로 다시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잘 보관해야 할 서류를 살펴보면;

- ▷ 총수입영수증(Gross receipt): 사업체로 부터 받는 소득을 말한다. 총소득 영수증의 출처와 금액이 함께 있어야 한다. 관련 자료로는 은행 예금영수증 인보이스 금전등록기 영수증 크레딧 카드 영수증 1099 MISC 양식 등이다.
- ▷ 구매관련 서류: 매입후 고객에게 되파는 경우를 말한다. 제조업자나 생산자라면 원자재의 비용을 포함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하고 가공하는데 들어가는 부품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지원서류로는 구입 금액과 실제 지불 금액 등을 포함해야 한다. 결제된 체크 금전등록기 영수증 크레딧 카드 영수증 인보이스 등이다.
- ▷ 지출관련 서류: 지출은 비즈니스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말한다. 지원서류에는 지출액과 지불된 액수를 포함해야 한다. 지원 서류로는 결제된 체크 금전등록기 영수증 회계자료(Account statement) 크레딧 카드 영수증 인보이스 현금전표 등이다.
- ▷ 기타 여행 교통 유흥 선물용 지출: 마찬가지로 지출된 액수를 나타내는 관련 지원서류가 필요하다. 결제된 체크 금전등록기 영수증 회계자료(Account statement) 크레딧 카드 영수증 인보이스.
- ▷ 자산 관련 사항: 자산으로는 프로퍼티외에도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계 가구 등이 포함된다. 사업체 자산에 대한 특정 정보를 확인해줄 자료들을 잘 보관해야 한다.

사용세 관련 납세 자료 등은 되도록 모두 보관토록 하고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한다.

각종 서류나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분류에 따라 대부분 다르다. 일반적으로 세금공제 또는 소득에 관련된 것은 세금보고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과 동일하게 간주하면 된다.

자료를 보관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그 기간 내 크레딧이나 환불 세금보고 내용의 수정 등의 유효기간과 대부분 일치한다. 세금보고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데 다음은 내용별로 분류해서 보관해야 할 기간을 표시한 것이다.

- (1) 3년 보관 서류: 추가 지불해야할 세금으로 아래의 (2)(3)(4)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서류
- (2) 6년 보관서류: 세금보고 해야 되나 보고치 않은 소득으로 세금보고시 그 소득이 총 소득의 25%를 넘었을때
- (3) 무제한: 사기혹은 고의적인 세금포탈시 관련 기록이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또 자산 정리시 자산의 만기에 관한 정보
- (4) 3년혹은 납세후 2년: 세금보고 이후 크레딧이나 세금환불을 신청했을 경우
- (5) 7년: 약성채무 변제에 따른 세금관련 클레임 신청 혹은 유가증권 폐쇄에 따른 손실을 세금보고상에 청구했을 경우
- (6) 4년: 고용 고용인에 관련한 세금 자료는 납세기간을 넘긴 뒤 4년간 보관



치아 상식 제대로 알기



만약 치아가 부실하다면 음식을 잘 씹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장 등 소화기관에 큰 부담이 돼 전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치아는 음식을 씹는 기능 뿐만 아니라 발음과 얼굴의 아름다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강조직이 얼굴의 모양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는 치아나 다른 구강 조직이 결손된 사람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인체의 다른 기관과 달리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이 최선이다. 3대 구강병이라 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주염, 부정교합 모두 작은 노력으로 큰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구강건강 상식을 알아보자.

■ 껌을 씹는 것은 치아에 안 좋다?

껌은 치아에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할 수 없다. 단물이 빠진 후에도 계속 씹게 되면 치아 주위에 붙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닳여 나갈 수도 있고 씹는 운동에 의해 잇몸과 턱 근육이 강화된다. 그러나 턱이 아플 때까지 하루 종일 껌을 씹는 것은 턱 근육에 무리를 줄 수 있다.

■ 선천적으로 치아가 약한 사람이 있다?

황이가 튼튼하다고 하는 말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가 선천적으로 약하고 튼튼한가는 알려진 바 없다. 치아 색과 치아의 건강한 것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요사이에는 치아를 희게 하는 치아 미백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 치솔질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번만 하면 된다?

치솔질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은 후에 치아에 붙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닦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끼 식사는 물론이고 간식 및 과자류 섭취 후에도 치솔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물이나 과일 등 간단한 음식물 섭취 후에는 치솔질까지 할 필요는 없다.

■ 스케일링을 하면 이가 깎여나가서 시리므로 안 하는 것이 좋다?

스케일링은 치아에 붙어 있는 치태 및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로써, 치아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는다. 스케일링을 한 후에 이가 시린 것은 두껍게 붙어 있는 치석을 다 떼어내면 치석 때문에 존재했던 잇몸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부어 있던 잇몸이 수축되어 치아뿌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찬물에 시리게 되는 것으로

시일이 지나면 원상회복된다.

■ 스케일링은 한 번 하게 되면 자주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다?

치석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결합되어 생성되는 해로운 물질로서, 제거하지 않으면 치아 및 잇몸에 독성물질로 인한 자극을 주므로써 염증을 일으키며 또한 계속 치아 뿌리방향으로 파고들어 침착이 되므로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는 것이 스케일링으로써 스케일링을 하고 난 뒤에는 치석이 조금만 끼어도 많이 낀 것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에 한 번 하면 자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스케일링을 하던 안하던간에 치석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면 치아에 끼게 되므로 스케일링을 하므로써 치석이 더 잘 낀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 스케일링은 너무 아파서 하기가 싫다?

평생에 한두번 하는 사람은 스케일링 할 때 아플 수 있다.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을 모두 떼어내야 하기 때문이며 오래된 치석은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사람은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으며, 아프지도 않고, 스케일링을 하고 난 후 찬물에 시리지도 않는다.

■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

스케일링이란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을 떼어내는 치료술식이다. 치석을 떼어내면 치석이 있던 자리가 공간으로 남게 되며, 또한 치석으로 인해 부어 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치아 사이가 벌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치석이 매우 많았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치료 전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 잇몸질환이 있는 경우에 잇몸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잇몸질환은 질병을 일으키는 유발인자가 있다. 잇몸병의 원인은 흔히 프라그(치태)라고 불리는 음식찌꺼기와 세균덩어리들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치태나 치석 같은 물질이 잇몸에 자극을 주어 질병이 일어나고 진행되는데 약을 먹어서 이러한 물질(치태, 치석)이 없어진다면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므로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내과의 질병 같이 약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외과같이 원인 제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치태와 치석의 형성을 막고 이미 형성돼 있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주는 게 잇몸병 치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가장 흔한 방법이 치석제거술(스케일링)이다.

■ 구강 청정제나 방향성 치약으로 구취(입냄새)를 없앨 수 있다?

입냄새의 원인은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여러가지이다. 구강청정제 등의 사용으로 일시적으로 입냄새는 없어질 수 있으나 약제의 효과가 떨어지면 또 입냄새가 난다. 구강청정제를 자주 사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미국에서 구강암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빈번한 구강청정제의 사용이 구강암 발생의 많은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전동칫솔이 손으로 하는 칫솔질보다 더 편하고 잘 닦인다?**

칫솔질은 아래위로 솔로 쓸어내듯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좋다. 전동칫솔은 아직까지 아래위로 회전하는 것은 없는 것 같으며, 잇다 하더라도 손으로 하는 것만큼 정교하지 못하다.

■ **머리가 큰 칫솔이 좋다?**

머리가 큰 칫솔이 잘 닦일 것 같지만 칫솔은 치아 사이와 치아 구석구석을 잘 닦기 위해서는 머리가 작은 칫솔이 더 좋다. 머리가 큰 칫솔은 오히려 무리하게 구석진 부위에 집어넣으려다 입안에 상처를 내는 경우가 많다.

■ **치약은 비쌀수록 좋은 것인가?**

치약은 약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를 닦는데 도움을 주는 세척제이다. 그런데 치약이라고 불리면서 마치 치약의 선택이 이를 잘 닦는데 가장 중요한 것인 양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실 칫솔질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은 칫솔모의 기계적인 작용이다. 치약은 칫솔이 치아표면을 문지르면서 청소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다. 칫솔질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치약을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 **이는 소금(죽염)으로 닦는 게 좋다?**

치약에는 이를 잘 닦이게 하는 미세한 연마제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소금으로 칫솔질을 하면 소금의 입자가 커서 치아를 닳게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치아의 면이 잘 닦이지 않게 돼 치아의 건강에는 좋지 않다. 다만 치약으로 이를 닦은 후 소금물로 헹구는 것은 잇몸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 **전동칫솔은 한번에 2분씩 하루 2번만 쓰세요**

사람들이 전동칫솔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강력한 동력으로 치태(플라그)를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칫솔보다 힘을 덜 들이고 더욱 깨끗한 칫솔질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동칫솔은 원래 장애인, 노인, 어린이와 같이 손목 힘이 부족해 칫솔질을 하기 힘든 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

로 자칫 일반인들이 보통 이를 닦을 때처럼 힘을 줄 경우 치아가 마모되거나 잇몸이 상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만일 치주질환이 있다면 전동칫솔 사용 방법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염증이 있어 잇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양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동칫솔을 무리해 사용하면 심한 잇몸손상을 입게 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당뇨병이나 잇몸수술을 한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치주질환자의 경우 구강 내 작은 상처에도 쉽게 감염되고 치유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 전동칫솔은 일반칫솔에 비해 가격이 비싸 교체하기가 쉽지 않은데 반드시 3개월 전후로 해서 칫솔모의 마모정도와 상관없이 바꿔줘야 한다. 교체시기를 무시하고 계속 쓰면 칫솔모에 구강세균이 서식하게 된다. 또 오래 쓴 칫솔모는 프라그 제거 효과가 떨어진 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칫솔모는 형클어지고 거칠어져 양치질 시 입천장이나 잇몸 등에 상처를 줄 수 있다.

전동칫솔 사용자는 보통 양치질의 모범인 '3·3·3 양치법' (하루 3번, 식사 후 3분 내, 3분 동안)을 따르면 안 된다. 전동칫솔을 너무 자주 쓰거나 오래 사용하면 치아를 다치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전동칫솔을 사용하고 점심식사 후에는 되도록 일반칫솔로 가볍게 이를 닦아야 한다. 또 한 번 양치에 소요하는 시간도 2분이 적당하다고 지적한다. 전동칫솔질을 할 때는 어금니부터 치아 각각 번호를 정해 놓고 한 개당 4~5초 씩 양치하면 대략 2분 정도에 모든 치아를 골고루 닦을 수 있게 된다.

■ **올바른 칫솔질**

칫솔질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피해야 할 것은 칫솔을 좌우 수평으로 문질러 닦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가장 쉽긴 하지만 치아 사이가 잘 닦이지 않고 치아의 옆부분 마모가 심하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333 양치법이란 하루3번, 식사후3분내, 3분 이상 닦는다는 것이다. 이것만 지키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는 칫솔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더 열심히 닦으면 좋지만 333을

지키기도 쉽지는 않다. 이를 닦을 때 시계를 놓고 시간을 한번 재보자. 이 닦을 때의 3분이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느낄것이다. 333만이라도 지키자. 당신의 구강건강을 위한 최선책이다.

■ **바람직한 칫솔질 방법 중 한가지인 회전법**

1. 윗니를 닦을 때는 칫솔모가 위로 향하게, 아랫니를 닦을 때는 칫솔모가 아래로 향하게 한다.
2. 칫솔모를 잇몸에 위치시킨다.
3. 칫솔 머리 부분을 잇몸부터 이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닦아 내린다.
4. 같은 부위를 10~20번 반복해서 닦는다.
5. 앞니 안쪽 부분은 칫솔을 세워서 닦는다.
6. 씹는 면은 칫솔을 앞뒤로 움직이며 닦는다.
7. 볼 안쪽과 혀도 닦아준다.

연구에 의하면 칫솔만으로는 치아에 붙은 찌꺼기의 60% 정도밖에 닦을 수 없다고 한다. 빠지지 않는 찌꺼기는 대부분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데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과 같은 보조 청결 기구가 매우 효과적이다.

■ **좋은 칫솔 고르는 법**

칫솔은 크기에 따라 어린이용과 성인용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성인 중에도 구강 구조가 작은 사람은 어린이용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칫솔의 머리 부위가 작아야 맨 끝 어금니까지 제대로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칫솔 모는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고 끝이 둥근 것이어야 하며, 폭은 이 두개를 덮을 정도가 좋다. 또 너무 뾰뾰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이 잇몸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손잡이는 잡기 편한 것으로 한다.



“물과 음료수 제대로 알고 마시자”

[물]

인간의 몸의 70%는 수분. 물은 만병통치라 할만큼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 지침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물에 관한 상식도 가지가지. 공통적인 것은 건강을 위해 물은 반드시 충분히 마셔주어야 한다는 것. 이왕 마시는 물 제대로 알고 마시자. 물에 관한 진실 혹은 오해를 살펴봤다.

▲ 물을 많이 마시면 체중을 줄이는효과가 있다?

사실이다. 유타 대학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의 속도가 2~4% 늦어지는데, 이는 하루 40~60 칼로리를 덜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다.

▲ 카페인 들어있는 음료는 물만큼 수분을 공급하지 못한다?

사실이다. 물은 마시는 양의 2/3가 체내에 흡수되고 1/3이 배설되는 반면 카페인이 든 음료는 수분의 50%만이 체내에 흡수된다.

▲ 플라스틱 물병은 한동안 재사용해도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 플라스틱 물병에 든 물을 마실 때 병 안에 든 물과 박테리아가 입안으로 들어오는데, 여러 번 사용하면서 병 안의 박테리아는 엄청나게 늘어나며 이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 체내에 수분을 많이 공급하면 주름을 방지할 수 있다?

대체로 그렇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하며

주름이 더욱 눈에 띄기 쉽기 때문이다. 체내에 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간단한 ‘핀치’ (Pinch) 테스트로 알아볼 수 있는데 손등을 살짝 꼬집었을 때 금방 원상태로 돌아오면 수분이 충분한 상태, 시간이 걸리면 수분이 부족한 상태다.

제일 좋은 물은 어떤 것일까?

좋은 물의 조건

마시는 물은 끓인 물보다 생수가 좋다. 물은 끓이면 생명력을 잃게 된다. 물분자는 보통 5개의 연결 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6각형고리 모양일 때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 좋다는 육각수로 온도가 낮을수록 6각형 모양의 분자가 많아진다. 냉장고에 생수를 넣어두면 육각수가 20% 정도 생성되지만 끓이면 사라진다. 또 끓인 물은 산소가 부족하고 칼슘 등 무기질도 사라진다. 예를 들어 끓여서 식힌 물로 금붕어를 기르거나 화초에 주면 얼마 안 가서 죽는다

수돗물은 받아뒀다가 마시는 것이 좋다.

수돗물을 실온에 그대로 두면 몸에 좋지 않은 염소는 날아가고 나쁜 물질은 밑으로 가라앉는다. 이 때 윗물만 받았다가 얼린 뒤 다시 녹여 마시는데, 이는 몸에 좋은 육각수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

- 1 유해 물질이 없는 물
- 2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 있는 물
- 3 약알칼리수
- 4 활성수소가 풍부한 물
- 5 육각수
- 6 생수

건강 효과가 있는 물 마시는 법

-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마신다.
- 2 식간(공복)에 한 잔씩 마신다.
- 3 물 1컵을 3분에 걸쳐 씹듯이 천천히 마신다.

스포츠 드링크도 하루 8온스 이상 마시지 않도록 한다.

- ▲ 일반 소다와 과일 음료수: 영양소는 전혀 없고 쓸모 없는 칼로리만 높다. 가능하면 적게 마시도록 하며, 아예 마시지 않으면 더욱 좋다.

[음료수]

한국 식당이야 음식과 함께 물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국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음료수부터 시켜야 한다. 이 때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마시는 음료수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마시는 것 하나도 제대로 알고 마시자.

〈커피는 하루 4잔 이하로 마시되 설탕은 조금만 넣고 스킴밀크, 혹은 1%우유를 더해 마신다〉

- ▲ 물: 몸에 수분을 제공하면서 칼로리는 전혀 없다. 하루 8잔 이상 마셔도 살찔 염려가 전혀 없다. 목이 마르지 않을 때까지 무조건 계속 마셔라.
- ▲ 차와 커피: 칼로리가 낮고 만성 질병에 효과가 있는 단백질이 들어 있다. 커피는 하루 4잔 이하(임신 혹은 수유중이라면 하루 2잔), 차는 하루 6잔까지 마실 수 있다. 단 설탕은 약간, 스킴 밀크, 혹은 1%우유를 사용한다.
- ▲ 우유: 1%우유 혹은 스킴 밀크는 홀 밀크, 혹은 2% 밀크보다 칼로리는 적고 칼슘 등의 다른 필수영양소 함유량은 많다. 8온스 잔으로 하루 2잔 이상 마신다.
- ▲ 다이어트 소다: 칼로리는 없지만 치아를 손상시키는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있다. 8온스짜리 잔으로 하루 4잔 이상은 마시지 않는다.
- ▲ 과일 주스, 홀 밀크, 주류, 스포츠 음료: 생각보다 많은 양의 칼로리와 설탕,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주류의 경우 임신부라면 마시지 않아야 하며 일반인의 경우 하루 한잔(와인은 5온스, 맥주 12온스) 정도가 좋다. 주스나 우유,





800-442-4141

다기능 ATM

- ▶ 핸드폰 전화카드
- ▶ 장거리 전화카드
- ▶ Western Union
- ▶ 현금인출

매상증가, 이익창출
 신규 고객 확보



Trade In

지금 전화하세요!!



- ▶ 기계 업그레이드
 Single DES ATM은 Triple DES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합니다
- ▶ 구형 → 신형으로 교환
 구형기계는 다기능 ATM으로 좋은가격에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 Lease / Rent / Purchase ▶ Free Placement / Service ▶ Full Cash Management ▶ 24 Hrs. / 7 Days Technical Support

NEXTRAN
 www.nextrangroup.com

Headquarter
 57 Romanelli Ave.
 S.Hackensack, NJ 07606
 Tel. 800. 442. 4141
 Fax. 201. 498. 0498

Georgia
 6040 Unity Dr. #H
 Norcross, GA 30071
 Tel. 877. 209. 4103
 Fax. 770. 209. 4107

Philadelphia
 653 Skippack Pike Suite 116
 Blue Bell, PA 19422
 Tel. 888. 542. 2990
 Fax. 215. 542. 2994

Virginia
 3103 Valley Drive
 Alexandria, VA 22302
 Tel. 888. 542. 2990
 Fax. 215. 542. 2994

Oregon
 6645 NE. 78th St. Suite C5
 Portland, OR 97218
 Tel. 503. 820. 1186
 Fax. 503. 257. 3806

컬처 코드

- 세상의 모든 인간과 비즈니스를 여는 열쇠

클로테르 라파이유 (지은이), 김상철, 김정수 (옮긴이)
출판사 : 리더스북

왜 패스트푸드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을까? 왜 미국인은 축구가 아닌 야구에 열광할까? 왜 일본의 이혼율은 상대적으로 낮을까? 이탈리아의 남자들이 여자들을 쉽게 유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프랑스인들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섹스 이야기는 괜찮아도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박하다고 생각할까? 전세계 사람들이 이토록 다르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인류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이면서 마케팅 구루이기도 한 저자는 이 모든 질문의 답이 바로 '컬처 코드(culture code)'에 있다고 말한다. 컬처 코드란 한마디로 "특정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일정한 대상에 부여하는 무의식적인 의미"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코드는 각자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경험한 문화를 통해 획득되며, 따라서 어린 시절을 어떤 문화 속에서 보내느냐에 따라 코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컬처 코드는 전세계 모든 인류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열쇠와 더불어, 고객과 시장을 근본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다. 특히 이 책에 담겨진 독특하면서도 혁신적인 통찰력과 20가지 코드에 대한 분석은 신상품 기획, 광고 및 홍보 전략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유용할 것이다.

클로테르 라파이유 (Clotaire Rapaille)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이자 문화인류학자이며 마케팅 구루이기도 하다. 정치학,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를 받았으며, 소르본느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박사를 받았다.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느대학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에사데대학교, 미국의 미시건대학교와 뉴욕주립대학교, 스위스의 제네바대학교 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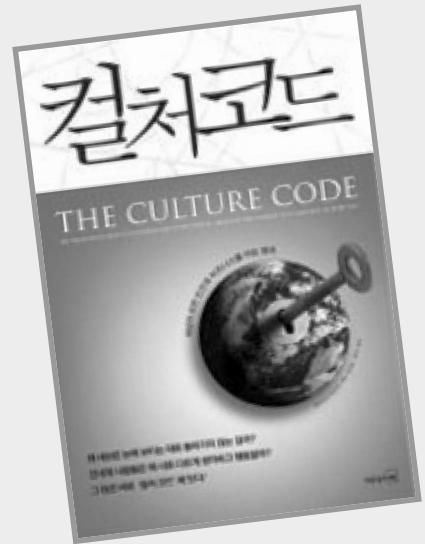
서 강의를 했다. 2006년 현재 아키타이프 디스커버리스 월드와이드 (Archetype Discoveries Worldwide)의 회장으로서, '컬처 코드'를 활용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7 Secrets of Marketing in a Multi-Cultural World>, <Creative Communication> 등이 있다.

옮긴이의 글
보이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시작하는 글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경

Chapter 01 문화적 무의식의 발견
코드를 발견하는 다섯 가지 원칙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라
감정은 학습에 필요한 에너지다
내용이 아닌 구조가 메시지다
각인의 시기가 다르면 의미도 다르다
문화가 다르면 코드도 다르다
제3의 무의식, 문화적 무의식

Chapter 02 사랑과 유혹, 섹스에 대한 코드
청년기적 문화의 성장통
문화가 젊다는 것의 의미
성장을 거부하는 영원한 젊은이들
미국 문화의 청년기적 특징들
왜 사랑은 늘 헛된 기대로 끝날까
유혹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섹스는 없고 폭력은 있다
롤러코스터를 타다

Chapter 03 아름다움과 비만에 대한 코드
폭력과 도피에서의 줄타기
아름다움과 섹시함은 다르다
아름다움 안의 신비로움을 찾아
비만은 문제가 아니고 해결책이다



비만의 반대편에는 관계가 있다
욕구를 저버리기 위한 퇴행
구원의 추구

Chapter 04 건강과 젊음에 대한 코드
언제나 생존이 우선한다
주술치료사에게서 배운 것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병원
절제를 강요하지 마라
젊음에 매혹되는 이유
젊음이라는 가면 쓰기
젊음에 대한 환상을 판다
파충류 뇌가 우리에게 거는 말

Chapter 05 가정과 저녁식사에 대한 코드
생물학적 체계를 넘어서
야구가 국민적 오락이 된 이유
가정으로의 귀환에 대한 애착
가족에 대한 감정이 존재하는 곳..

제 9 대 집행부 명단

회 장 김주한 (OR)

부회장 이승수 (PA)

부회장 김복기 (LA)

부회장 유철희 (GA)

부회장 이춘복 (WA)

이 사 장 한용웅 (DE)

부이사장 임광익 (CO)

부이사장 김영필 (CANADA)

부이사장 정확식 (VA)

부이사장 김현주 (MD)

본부 임원

기획부장 유인현 (PA)

섭외부장 곽상호 (PA)

홍보부장 배운향 (LA)

본부 감사

감사 고태환 (TX)

감사 원무식 (PA)

고문

김양일

전기풍

김치현

구군서

Thomas Lee

스 폰 서

Anhauser-Busch Inc.

Coca Cola USA, Inc.

Coors Brewing Co.

Money Gram International.

Nextran Group, LLC.

Wells Fargo Bank

BBQ Chicken

PAUL DELIMA coffee

Appreciates the support of its
advertisers and encourage you to
patronize them.



*Always refreshing.
Always delicious.*

Always



IMPORtant IMPACT



When you're ready to grab your share of the rapidly growing import beer market, make sure that Grolsch is a major part of the plan. With four brand varieties – Grolsch Premium Lager, Light Lager, Blonde Lager and Amber Ale – Grolsch is the perfect year-round solution to your import equation.

- In 2005, Grolsch was among the fastest growing imports, registering +15.8% in case sales.*
- The distinctive Swingtop packaging is a natural for display building that drives sales in this profitable category.
- Judged the "World's Best Beer" in the Pale Lager category for three consecutive years.**

Now, in most markets, your familiar Anheuser-Busch wholesaler is the representative for the entire Grolsch brand portfolio, ensuring superior service, quality standards and streamlined ordering.



Grolsch

ANHEUSER - BUSCH
 DELIVERING
MORE FOR YOU

*Source: IRI, Total US - FOOD, 52 Week Ending Jan 22, 2006

**Source: Beverage Testing Institute, Inc., Chicago, IL

For more information on the Grolsch family of imports contact your Anheuser-Busch sales representative and visit us at www.beerprofitguide.com.

© 2006 Import Brands Alliance, Inc., St. Louis, MO